살아있는 통불교 박물관

가람의 장면들 ⑫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고성 옥천사

◇15동의 건물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는 옥천사는 조선시대 통불교적인 특징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찰이다. 토족들의 무단침입을 막기위해 방어적으로 지은 옥천사 지방루의 폐쇄적인 모습. 조선조 불교의 수도원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해 마당도 작다.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광리, 연화산의 연꽃잎 같은 산자락에 아늑하게 둘러싸인 거대한 사찰이 있다. 신라 때, 의상파의 화엄십찰로 창건되었다는 옥천사다. 그러나 화엄십찰의 하나라는 옥천사의 후예라는 주장은 여기 말고도 청도 용천사 등 많은 사찰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고성 옥천사의 창건 역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 절의 건축적 중요성은 그 방대한 규모에 있다. 중심을 이루는 대웅전 말고도 그 뒤로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 조사당, 산신각, 칠성각 등 한국 사찰에 있는 거의 모든 불전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적묵당, 탐진당, 취향전 등 자잘 남아있는 승방들도 대단하지만, 과거 전성기 때는 12방사가 있어서 수백명의 승려들이 거처하던 대규모 사찰이었다. 현재도 15동의 건물들이 좁은 절 터에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사찰은 전국적으로 흔치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유명한 진주성 사움의 배후기지였고, 여느 사찰이나 마찬가지로 전쟁 통에 모두 소실되어 그 이전의 건축적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7번째 중창인 1644년 이후의 것들이다. 흔히 조선후기는 불교의 쇠락기로 여기기 쉽고, 따라서 이 시기의 불교건축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거나, 보잘 것 없다고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현존 불교건축의 95% 이상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정식 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조선후기는 불교건축의 또 다른 융성기였다. 물론 불교시대인 고려조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계에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은 가람과 불전들을 재건했었다. 고성 옥천사는 그 대표적 사례다.

흔히 조선후기의 불교는 종파도 교단도 없고, 계통적인 법맥도 찾기 어려운 통불교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조계종이니 화엄종이니 하는 종파는 물론, 교종과 선종의 차이도 없을만큼 모든 교리와 신앙들이 혼합된 양상이었다. 그만큼 불교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들이 극한적으로 어려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찰 내에는 대중적인 모든 신앙들이 종합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몇 안되는 인근 신도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었다.

이러한 통불교적 양상을 옥천사만큼 건축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드물다. 여기에는 법화신앙을 비롯해서, 정토신앙, 영산신앙, 민간신앙들이 혼재되었고, 심지어는 우물의 용신신앙까지 습합한 옥천각도 세워졌다. 이러한 여러 신앙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졌다. 약간 학술적인 이론이지만, 부처급을 신앙하는 상단신앙, 보살급의 중단신앙, 그리고 민간 차원의 잡신들을 위한 하단신앙으로 나뉜다.

상단, 중단, 하단의 신앙을 위해 세워진 전각들 또한 공간적 위계를 갖는다. 상단의 대웅전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중단신앙인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더 멀리에는 하단신앙 전각들인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옥천각들이 더욱 작은 규모로 감싸고 있다. 옥천사는 살아있는 통불교 신앙의 건축적 박물관이다.

조선 후기에 불교의 융성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사회의 지배사상은 유교였고, 불교는 아녀자나 서민들의 종교일 뿐이었다. 또한 스님들은 도성에 출입조차 금지된 불가촉민의 신분이었다. 더욱 불교계를 괴롭힌 것은 지방 관청과 토착 양반들의 수탈이었다. 사원 소속의 농토에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했음은 물론이고, 산성이나 도로 공사에 승려들이 빈번히 차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투리나 한지 생산을 떠맡아, 산중 승려들은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다 못해, 관청에 탄원을 하는 한편, 도망가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토족 양반들은 무단으로 사찰 경내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스님들을 괴롭혔다. 심지어 말을 타고 대웅전 앞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이 시기 가람들 앞에는 누각을 세워 양반들의 침입을 막았을 정도였다. 이러한 수탈 속에서 사찰이 살아남는 방법은 조직화된 수도생활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가급적 외부의 침입에서 안전하도록 건축들을 방어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옥천사 7칸 짜리 지방루의 지극히 폐쇄적인 모습이나, 입구를 적묵당 부엌으로 봉쇄하게 만든 이유도 그렇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도 그렇다.

건물들의 수량과 규모에 비해서 마당의 크기가 작은 이유도, 외부의 신도들은 많지 않고 오로지 경내의 스님들만 기거하는 산중 수도원의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옥천사는 통불교의 박물관일 뿐 아니라, 조선조 불교의 수도원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사찰 전각 한곳에 모은 듯
법화·정토·영산·민간신앙 혼재
'자급자족' 수도생활에 맞게 설계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상호 뚜렷한 고려불상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 한국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벼가 알알이 익어가는 김제평야의 황금물녘은 돌부처 찾기 답사단(단장 이근후·이화여대 외대교수)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드넓은 평야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김제시로 들어가 물어물어 찾아가니 당우가 오밀조밀 배치된 문수사(주지 운공)가 있다. 주지스님의 안내로 대웅전 뒷편으로 돌아가니 암벽앞 관석에 양각된 좌상이 있다. 이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듯한 여래좌상은 잘 다듬어진 화강암에 조각됐는데 앙련좌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원만한 상호와 당당한 동체가 특징이다.

앙련좌위 선정인 자세
안정감있고 어깨 당당
관악산 마애불상 닮아

소발의 머리위에는 반구형의 육계가 있고 상호는 원만하며 양미간, 코, 입도 정제돼 있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있으며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삼도가 돌려져 인자하면서도 근엄하다.

양쪽팔에 걸친 의문이 길게 흘러 양쪽 무릎을 덮고 있으며 양손을 겹친 선정인을 보이고 있는 수인은 후대에 깎인 흔적이 보인다.

앙련좌는 5관의 큼직한 잎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형의 연꽃봉우리를 장식했다.

높이 148cm의 석불인데 원만한 상호와 당당한 어깨, 균정한 동체, 안정감있는 무릎, 장식적인 앙련좌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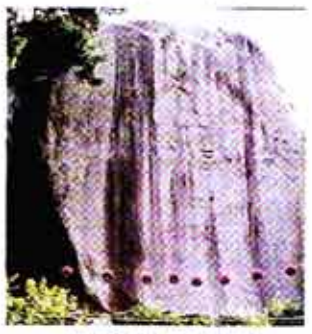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신재구회원은 "부처님의 상호가 관악산 마애불과 유난하게 비슷하다"며 "선이 2cm정도로 선명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손을 본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불사의 전당
▶천수천안 관음보살

현판
부처님조상 전문 만들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고증: 정영호 박사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균형미 뛰어난 조선불상

서울 노원구 천보산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본지 236호 14면〉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답지 않게 조형미와 균형미가 뛰어나다.

특히 신라시대 황금보관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된 듯한 보관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시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높이와 굵기의 비례가 적정하다. 또 테두리에 마름모 모양의 사슬장식이 드리워져 세련미가 엿보인다.

상호는 약하게 부조돼 눈이 유난히 가늘고 길게 표현됐으며 입술은 아주 얇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연화대좌위로 흐르는 하늘 하늘한 천의 자락이 유연하며 왼손의 두꺼운 팔찌는 보살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고급나무 조각 옥판 팔각형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34-9490, 334-9491
야간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흩어지게 하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지어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